



攝
心
實
愛
信
慈
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東友會報

1987年 (檀紀 4320年) 8月 31日 第125號 [1]

발행인 鄭申在
편집인 崔在益
인쇄인 哲炫旭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수해복구에 나선 재학생들 (忠南 論山)



레슬링부 전지훈련

방학중에도 도서관을 메운 후배들의 모습



독일의 레겐스부르크 대학과의 자매결연 모습



東國라이온스클럽

조직총회개최

日時：1987年9月28日 午後7時

場所：서울 앰베서더 호텔



東國80年 歷史와 傳統을 자랑스럽게 지닌 7萬 東國人 여러분!
여기 어려운 환경의 後學들을 도우면서 先後輩間에 同學의 情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뜻있는 同門들의 많은 參與를 바랍니다.

가입문의 :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内 동국라이온스 (733-3993)

조직발기 라이온 崔允植 (61 경제) 동문 274-1554~5

동국라이온스클럽
DONGKUK LIONS CLUB

733-3991·3992·3993

思索의廣場

—斷想二題



모욕 혼히들 민족간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뜻으로 부르는 명칭에 일본사람은 「족비리」중국사람은 「외놈」 한국사람은 「염전」이라는 것이오. 또한 서양사람이 동양사람을 싸잡아하 이니스라고 부르는 것에도 우리는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

천윤기동문

언제가 토론토의 한 쇼핑센터에 들어 커피한병을 사려고 했을 때의 일이다. 마침 날개가 없길래 상자를 뜯고 병을 꺼내려 했더니 『여보시오 내게 말하면 꺼내줄 것인가, 왜 당신 마음대로 상자를 뜯는 거요, 당신 최이니스?』하며 느닷없이 나타난 서양집원이 내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것이 아닐까. 어찌나 놀라고 모욕감을 느꼈던지 나도 대뜸『이 무식한 놈아, 너는 여기서 일하는 종업원으로서 당연히 날개를 준비해놓았어야 하는 것인데 네가 할 일도 다 안하고 손님인 내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지배인에게 얘기해서 해고를 시키겠다』고 소리를 쳤다. 내주위에 소망했던 손님들도 나를 지지하며 모여들자 그집 원은 그제야 변명을 하곤 사과의 악수를 청해왔다. 결국 그는 「화이너스」란 말로 나의 민족적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이다.

민족에 대한 작은 긍지도 국제화시대에 우리에게 소중한 정신적 확인이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적, 정치적 강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정신을 잊고지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해 되는 추억이다.

내가 LA에 살고 있을 때 하루는 천유학생 구가 낮선 교포청년을 내게 소개한 적이 있었다. 서울 모월강회사사장의 아들이라는 그는 LA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며 미국에 온지는 1년정도 되었다고 했다. 어색한 영어반한국 말 반으로 하는 인사와 예의도 없이 통통 내뱉는 말투가 어찌나 오만불손한지 내 얼굴이 화끈한 정도였다. 그가 새학종이라는 W컬리지는 무명학원으로, 드린 내면 출입장을 내주는 영터리 학원으로 이런 류의 학원은 도처에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한국의 부모들은 이러한 실정도 모르고 미국유학중인 자녀를 두었다고 자랑을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혼인 그가 고국의 여성 앞에서도 그같은 식으로 허세를 부릴 것이 뻔하다는 것을 잠시동안의 대화에서 쉽게 느낄 수 있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막연한 서구에의 동경만을 갖고 불길분명의 이 기에만 가치를 두기쉬운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보다 진실되고 주체적인 자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민족과 국가에 대한 크나큰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만큼.

<前 카나다 동문회 고문>

보다眞實되고主體的인자각이필요할때

협조를바랍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저극적인 참여와 거운 격려속에 지난 2월 同懇會館 건립의 밀바탕이 될사무국 이전을 비롯, 컴퓨터도입으로 사무자동화를 이루는 등 同懇會가 거듭 발전하고 있음을니다.

동문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年會費는 동창회관건립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등 東國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會費납부에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東國大學校總同窓會 事務局

◇회비내역

- 一般會費... 1만원
- 理事會費... 5만원
- 常務理事... 20만원
- 단체회비... 회원수대로
- 해외동문회비... \$ 20
- 監事... 2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長... 100만원

◇납부안내

- ①은행지로이용 납부
②전화주시면 방문수납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사
무국(733-3991~3)으로 문
의 바랍니다

支部消息

東女會 安채란會長 재추대

7월23일 동녀회 定期總會에서 확정

母校출신 女學士들의 모임인 東女會(회장=安채란·54국문·복지중고교 이사장)의 제25회 정기총회가 지난 7월23일 모교 계산관에서 열렸다.

安회장을 비롯, 金貞愛(59불교)前회장, 印丁一(72원원·온양관광호텔 사장)부회장, 李永子(63불교·교수)부회장, 任敦姬(도교여학생감, 韓明希도교 교수, 徐聞吉도교 학생장등 3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6월29일에 있은 회장단 회의의 결의사항인 회칙개정안과 安회장 재추대등의 안건을 주인하고 회발전을 다짐하였다.

安회장의 박사학위 취득 축하연을 겸하기도 한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회장단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3시간의 총회를 마쳤다.

水原支部 體育大會
9月中 신갈中에서



▲ 사진은 安채란 회장이 李永子 동문으로부터 축하패를 받는 장면.

회원들 간에 이견이 생겨 이 문제는 회장단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3시간의 총회를 마쳤다.

水原支部 體育大會

9月中 신갈中에서

水原支部(會長=洪思曰 60英文)하기 체육대회가 9월중순



▲ 9월1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거ヘル월 모교 총장배정탈 북미주 동문회 글프대회에 수여될 총장배가 지난 7월 朴忠一 本會 常務理事(사진 左)에 의해 金容燁(62·法)회장에게 전달되었다.

경으로 연기되었다.
지난 6월 同會운영회의에서 7월중으로 결정했으나 수해로 인한 상황변경으로 9월중으로 연기된 것으로 장소는 신간증학교로 알려졌다.

大田支部 理事會

10中 體育大會 개최논의

大田支部(會長=朴鍾允59경제)
• 國제특수금속代表 7월중 정기이사회가 18일 은행동 그릴웨이에서 회장을 비롯해 安의호, 申允杓(65행정·한남대교수)부회장 権善道(72식공·그릴웨이代表)총무및理事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理事회에서는 오는 10월에 있을 同지부체육대회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한편 8월20일에 있은 8월 이사회에서는 8월11일자로 大田市長으로 영전한 金容聲(61法學)동문 환경문제 및 동화의 활성화 방안 등을 토의하였다.

會報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東國人은
東國인이 경영하는
나라항공으로

가장 저렴한 항공요금
(후불도 가능)

나리航空

대표이사 安重五

(65영문)

776-7895~7

752-4396~7

삼구빌딩1103호

(조선호텔후문 맞은편)

“서울프라자호텔을
불러주십시오”

서울프라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에게 맡기시고,
손님처럼 즐기십시오.

이제, 가장 나화사에서의 각종 연회를 편리하고 품위있게 치르실 수 있습니다.
서울프라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는 소중한 모임을 더욱 맛있스럽게 꾸며 드립니다.
작은 모임부터 큰 행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모임의 계획과 준비를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언제나도 전화하여 주시면 예산에 맞추어 실속있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프라자호텔을 불러주십시오.”

* 출장 서비스가 범로우신 분은 외벽면 실을 갖춘 프라자와 연회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및 문의: 전화771-22 교환 7245~7249

서울프라자호텔

동국인의 광고를
기다립니다
동국대학교
동창회 사무국
73
9
3
代



東國モ임의 지평여는 최고참 모임 선배의 희생, 후배의 궁지가 愛校

년 한 두명씩 세상을 떠나고 해서 그동안의 生을 논하는場이 되기도하고요.

요즘 젊은 후배들의 모임을 보면 회원들의 생일이나 사업적인 행사를 위주로 해서 만난 것 같은데 우리는 親을 담한 친구집에서 만나는 편이지요. 항상 그랬지만 우리들의 화제는 학창시절 이야기로만진 험집니다』라며 惠門會의 성격을 말한다.

현재 惠門會의 회원은 60여 명. 몸이 불편한 관계로 자주 참석치 못한 몇몇 회원이 있기

있다.

『선배와 후배, 스승과 제자는 선택되어진 이상 영원한 것 아닙니까 새삼스레 어려운방법론으로 모교사람을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요. 세속적인 회생과 도움이 필요할 뿐이지요. 아울러 재학생들의 東國人으로서의 긍지 또한 선배들의 도움못지 않게 愛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愛校論을 피력한다.

『우리들의 모임은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 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런지 모르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 지난 5월에 있었던 惠門會 춘계야유회의 모습.

는 하지만 1년에 2번씩은 정기적으로 전회원이 참석하고 있다.

금년에도 5월31일 부여의 한 동문이 초청 회원들이 축제와 유회를 갖는 등 회원들의 유대 강화를 굳이 論할 필요없는 모범이 되는 東國어른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주위의 評。

특히 母校 行事나 後學들의 축하모임에 빠짐없이 惠門會의 회원을 볼수 있다는 것은 이 모임의 母校 사랑을 쉽게 읽을 수

는 東國은 나의 고향이니까요』 혜문회의 회원이 집집 줄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東國의 일원으로 열심히 도움을 줄 것을 金회장을 통해 밝히는 惠門會는 존속의 의미를 잠시 삶는 세태를 떠나 東國인의 모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어른들의 모임으로 東大모임의 精神의 支柱임을 취재도중 쉽게 느낄 수 있었다.

◇ 회원명단

▲ 회장=金定基(韓國파이프라

이님社 長)

▲ 총무=李漢洙

▲ 具宗壽(大韓火災社 用비대
리집) 金慶洙(경희여고교장) 金
寬柱(명성여고교장) 金光洙 金
萬輝 金有一(종아건설 무사장)
金長好(모교교수) 金鍾聲 金智
福 金順植 朴光玉(경신고교교

사) 朴來春 朴善源(성남시 상
공회의소의장) 丁榮燦(세부사)
宋基成(변호사) 宋東熙(동신공
사대표) 宋秉讚 申國柱(모교교
수) 梁在憲(신동아화재해상보험)
吳奎煥(인쇄업) 吳麟根(중학교
장) 吳鳳烈 尹柱勳 李承旭 李
英茂(前 전대교수) 李外潤(대한
불교문화진흥회장) 鄭奉來 鄭晦
根 鄭益鎧 丁益燮 丁奎白(渡
美) 李世張 永求 趙大榮 池
炳璣 崔錫勇 崔行植 崔熙練
卓光潤 方世憲 李相容(서울
대교수) 崔柱鵠 黃雲夏 洪性旭
洪英愛(서운여중교장) 崔慶子(안
양여중교사)



金定基 회장



申國柱 동문

새주소를 알려주세요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주소입니다. 아직도 會報를
받아보지 못하시는 동문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
면 곧 보내 드리겠습니다.

▲ 趙洪九(71경영)=서대문구
연희동 134-2

▲ 鄭容淑()=구로구 독산동

25-15 동아출판사 상무이사

▲ 鄭진기(62법학)=대구시 중
구 계산동 2가71 한국토지개
발공사 경북지사

▲ 許炯式(70원예)=마포구 아
현동 614-3 <해성B/D 401
호> 한국종합조경

▲ 朴相文(66국문)=도봉구 수
유 4동 산127-17

▲ 李信白(75농학)=도봉구 창
1동 299 삼아APT 2동1208
호

▲ 李蓮永(70농학)=강남구역
삼동69 삼익APT 1동1401호
신용보증기금 안암지점 차장

▲ 金英南(84공경)=동대문구
선동농 621-1 현대자동차정
량리 업무소

▲ 朴熙坤()=각동구 신
천동 7-11 제일은행 임직별관

▲ 徐丙俊(61법학)=종로구 부
암동 162-1 한국상사 상무
이사

▲ 李建웅()=강남구 반
포동 200-1 제일은행 자문
동지점

▲ 金泰佑(63화학)=용산구 후
암동 105-192 진흥기업(주)

▲ 金英林(66경제)=강남구 반
포동 68 신포A.P.T 15동403호

▲ 조영모(87경영)=강서구 화
곡동 산70-1 우신 A.P.T 13
동507호

▲ 전재근(경원22)=강남구 신
사동 85-1 미성 A.P.T 22동
705호

▲ 金斗鉉(81행정)=종로구 견
지동 68 서울 B/D 5층 덕수
영업소 동아생명보험(주)

▲ 신철호(73경영)=강남구 논
현동 210-1 <삼원. 거창빌딩>
대표

▲ 강국중(73월원)=강서구 화
곡동 814-42

▲ 구재서(대원)=관악구 납현
동 1006-31 성인학원

▲ 崔水鏘(76경상)=강서구 신
적 2동328 목동 시시가지 A.P.T
1325동303호

▲ 金鍾烈(57법학)=중구 태평
로 2가250 삼성본관빌딩 16층 국
민리스(주)

▲ 朴基祐()=중구 서소
문동 75(대한빌딩 1003호)=법한
화재해상보험(주) 금성영업소



金寬性 동문



金長好 동문



朴來春 동문

桃園꽃집

화환 · 꽃바구니
생화 · 신부화
회분 · 동 · 서양란

TEL : 266-4571
야간 : 602-4806

대표 辛承水 (72 경영)

서울 · 중구 충무로 4가 125-1
진양빌딩 3 층 42호

대한가축원 영진가축원

- 외국 수입견
- 교환사육상담
- 각종 견구 취급
- 애완견분양

대표 서영진 (61경영)
중구 충무로 5가 73-2
266-0731 · 267-0195
265-0086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世宇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터폰, MDF 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용역

대표 趙椿煥 (74경영)

중구 을지로 4가 315-1 무광BD 510호

信一金属센터(株)

실내장식용 금속판매

대표이사 金鍾葉 (84경원)

본사 :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51-3

266-6662, 265-3258

지점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58

924-6662, 924-6363

汎韓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成光 대리점

업종 : 자동차 · 화재 · 특종 · 장기 · 상해보험등
각종 보험입무취급

대표 康鎮元 (72 경영)

TEL : 736-5362, 5361

서울 중구 삼각동 115 경기 B/D 1302호

7·13改閣서 두동문 重責맡아

内務部長官 鄭寬溶 부회장

鄭寬溶 (58 법학) 본회부회장이 지난 7월 13일에 있는 내閣개편에서 内務部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정통 관료 출신인 鄭 부회장은 총무처의 전시이 國務院사무국에서 수습행정으로 출발 25년간을 총무처에서 일해오며 요직을 두루 거치고 장관까지 역임한 총무처장이다. 지난 80년 국保委사무처장, 81년 중앙선관위사무처장을 맡아 대통령선거, 11대 총선 등을 관리해 앞으로 있을 선거를 치를 内務部장관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지난 82년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 86년 총무처장관을 역임했으며 합리적이며 치밀한 업무 추진을 하기도 정평이 있다. 원만하고 사교적인 성품으로 테니스와 골프 등에 수준급의 실력을 갖고 있다.

부인 崔孝順여사(46)와 2남 2녀.

勞動部長官 李憲琦동문은 유임돼



李憲琦(前교수) 동문은 이번 改閣에서 労動部 장관에 유임되었다.

임되었다.

母校 교수로 東國과 인연을 맺은 이래 본회 및 東國발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온 李 동문은 철도노조 국제부부장, 同 사무국장과 부위원장 등을 거쳐 11대 의원(전국구), 보사부자관을 역임하고 지난 86년 8월부터 노동부장을 맡아 노동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활약해오고 있다.

예전에 한전에 입사한 이래 경비단장, 보수지점장을 거쳐 강서지점장으로 근무해오다 이번에 자리리를 옮긴 것.

국립 보훈원장으로

李相律 동문

李相律
(57법학·
본회이사)
동문이 최근
재단법인
체신
공제조합
상무
이사로

로 榮進하였다.
李동문은 그동안 국가보훈처 교육과장, 의료과장 등을 거쳐 대전지방보훈청장,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역임하고 국가보훈처 감사관으로 근무해오다 이번에 榮進한 것이다.

大田市長으로 영진

金容聲 동문

金容聲
(61 법학)
동문이 지난 11일 忠南
大田시장으로 영진했다.

金동문은 산림청 총무과장을 거쳐 忠南
民防위국장, 예산군수, 京畿
북부출장소장, 仁川시 기획관리
실장, 天安시장 등을 역임하고 忠南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해오다 大田시장(이사관급)으로 榮進하였다.

通信公 전북지사장

安鍾烈 동문

安鍾烈(63 법학) 동문은 최근
한국전기통신공사 연수원장으로
서 선북지사장으로 榮進하였다.

安동문은 서울중앙우체국 제

總務處長官 張基梧 동문



성품의 소유자인 張基梧은 86년 육군준장으로 예편하면서 총무처차관으로 임명되었고, 87년 특전사 작전처장, 78년 특공수단장, 83년 특검단장, 85년 육군교육사령관 등을 역임한 지휘관 출신이다. 호방한

總務處長官으로 새롭게 著基梧(83·행원) 동문은 56년 육사 12期로 졸업한 후 75년 연대장, 77년 특전사 작전처장, 78년 특공수단장, 83년 특검단장, 85년 육군교육사령관 등을 역임한 지휘관 출신이다. 호방한

임시는 중책을 맡았다.
母校 행정대학원에서 방위산업학을 전공한 張基梧은 서울工高 재학시 학도병으로 6·25에 참전하기도 하였으며 태권도 8단·검도 6단에 축구·테니스등도 수준급의 실력인 만능스포츠맨.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부인 高正坎여사(53)와의 사이에 3女를 두고 있다.

장, 중립전기(株) 대표이사, 대한체육회 역도연맹 부회장 등을 거쳐 民正黨 청당발기인으로 11대 때 국회의원이 된 후 民正黨 청년분과위원회, 國會재무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태평양화학 미용부장
張雄助 동문

張雄助(64·행원) 동문은 최근 태평양화학(株) 시판부장으로서 미용부문으로

라이온스 運營委長
崔允植 동문

崔允植
(61경계·
前本부
이온스 부
총재) 동문
이 최근한
국 라이온
스 청력센

타 운영위원장에 취임했다.

청력센타는 불우한 청력장애자를 돕기 위해 지난 80년에 설립되어 현재 23개 라이온스클럽에서 활동으로 난청자들에게 청력개선 수술을 병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편 崔允植은 東國라이온스 클럽을 조직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가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모교 재단이사에

朴玄惺 동문

朴其宗(映
岩·前교
재단 이사
장) 대종사
의 대제로
공식이 된
東國學園
재단 이사

에 朴玄惺(75행원·도선사주지)
동문이 블록되었다.

朴동문은 학교법인 청담학원 이사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등을 역임하고, 도선사주지로 있으면서 사회사업에도 많은 활동을 보이고 있다.
본부 상무이사이다.

韓信보일러 공장장

鄭壽昌 동문

鄭壽昌
(80경계)
동문은 최근
한신보일러
기술 이사
겸 공장장
에 취임했

나. 鄭동문은 그동안 흰공영(株), 宇成건설, 正友개발, 정우엔지니어링등을 거쳐 이번에 한신공영 계열사인 同社의 공장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기록문학 대상」 수상

李喜成 동문

李喜成(81철학) 농부이 최근
한국기록문학협회가 제정한
「한국기록문학대상」의 제1회

수상자로 결정됐다.

李동문은 80년부터 경제잡지
와 여성잡지 등에 수십편의 드
로고기사를 기고해 왔는데, 이번
수상대상자 심사에서 「金壽煥추
기경과 李性徹종경의 인물비고」
가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고 한다.



<母校職員人事>

▲徐丙洙=총무주임에서 학생
생활 주임으로

최고 년 13.05%의 수익률 보장!

C P 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 · 1,000만원 이상 만기 · 90일 이상

실현한 투자 협력한 미래
대한투자금융
DAI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명동네거리 투자상장 777-4491
대 대 표 771-064



남산을 회상

한국作家
문학으로
여행

卒業 10년, 東岳도 많이 변했다.

내 기억 속의 목멱평방은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은 靜物이었다. 흙먼지 바람이 름시 불던 둑겨울, 입학원서를 든채 첫面한 캠퍼스 풍경은 황량하고 울씨년스럽기까지 했다. 입학식 석상에서 교사를 학장하며 비로소 東岳의 한 사립이 되었음을 실감했던 그때부터 공연히 고독한 적 했던 離氣의 나날. 어줍잖게 얹어들은 것들을 화제로 삼아 「까뮈」와 「프루스트」를 얘기했고, 이야 기의量과 비례해 슬도 무척 껴 마셨다. 「聖像」 앞 잔디 위에 앉아 가발린 말의 껌풀들은 아마 지금도 어둠이 떨려 오면 수련수련 東岳의 빛들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겨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변해져 있다.

「까뮈」를 이야기하기 위해 마셨던 술은 쓰기 썼지만 달고 맛있었다. 하지만 이젠 「까뮈」가 살았던 生의 물리적 공간의 漢字나서 서슴없이 논하는 이젠 눈단 살고 한때의 霸氣마저 사라져버려 절저하게 속련된 生活인이 되는 것만이 보身의 철경인례…….阜熟인자 身자인자 암수는 없지만 滾治之水의 清濁을 여기에 비유한다 면語不成설일까?

다랄까 쳇바퀴 도는 生活을 하다보면 書의 관성 때문이랄까, 모든 思考가 한곳으로만 쏠릴 때가 있다. 옆 생각을 할 틈도 许되지 않는, 그리하여 사시사찰 윗은 피겁만 전혀 無感覺한 채 허둥지둥하다가 문득, 아주 새삼스럽다는

듯 흐드러진 紅梅를 쳐나보니
自愧感에 빠져들 때 기묘하게
도 내겐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얼마전 母校를 찾은 일이 있었더니.

제작의 일도 제대로 못하는 선배주제임에도 (동창회원중에서)는 末席에 속하지만 나는 오랜만에 韓京한 이들이 고한길을 걸으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그런 설레임으로 이 건물 저 건물을 기우거렸다. 어줍잖은 감

느껴졌다.

그리고 보면 나는 무척 오랫동안 無症狀인 차로, 사회가 뿐 어내는 어떤 독소에 노출되어 있었던 셈이다.

시계나들이 빈번방으로 든다고 해도 그럴 수 있겠지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덕임에 익숙해 있었던 异常 菩薩心(?) 때문일까.

하지만 그런 그덕임도 유난히 죄책하고 어두컴컴한 교수회관 복도를 걸어나오면, 영원히 이해될수없는 의문의 암금

이 되어 가슴속으로 침전을 한다.

학창시절 배움 길목에 우뚝한 望柱石이었던 은사님들이 점점한 물림으로 걸으셨던 그복도는 아직도 내게는 동악의 추억이 가득한 궁금한 인연이다. 목벽의 숲을 품으며 다가와 심술궂게 창문을 두드리는 을씨년스런 가을날, 바람 소리를 풀고 조리시던 石田선생님, 보틀레르와 밀링顿 씽을 데보고 東岳의 풀에서 산책을 즐기셨던 草湖선생님, 차산하하시면서도 학생들에게 學問의 秋霜을 일깨워주곤 하시던 李東林선생님을 만날지에서나마 볼 수 있다는 것이 여간 행복한 일이 아님을 지금다 깨닫게 되었으니 미련함도 이만하면 度를 넘는 것이 아닐까.

石田선생님(奉午퇴임 강연때 강의실을 가득 메운 모습도 보기 좋으려니와, 실제로 오랜만에 강의실에 앉아 學生然하며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즐거움 또한 만만치 않아. 그날은 모처럼 만난 동창 선후배끼리 어울려 옛날의 치기를 화제로 삼아 밥이 더 깊어지기를 기나렸던 것인데 끝내 헤어질 무

렵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울한 얼굴이 되고 말았다.

자리가 비어 있었다. 뇌리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던 은사님들의 명폐가 내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날 강연회장에 의당 나타나서서 쪘령처럼 목소리로 달려있는 우리들의 귀를 질티히 桐園선생님도 전나마 속으로 던길을 떠나셨고 聖峯선생님, 宋赫선생님도 세상을 달리하셨다. 師弟의 인연도 인연이지만, 學窓 4년에 그분들로부터 입은 은혜 또한 말로 다하기 어려워 나는 때때로 속 양이를 한다.



徐容範

1954年生。78年 모교 國文科를 졸업하고 唐津 松岳高교사를 거쳐, 현재 醫協新聞 기자로 활약중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10여년 전의 나는 참으로 버르장머리없는 놀증의 하나가 아니었나 느껴졌다. 선생님들 앞에서 무례한 言事を 내뱉기도 했고 행동도 걸끄러웠던 것이다. 모두가 스트립고 부끄러운 옷날의 그것이지만, 지금껏 이런저런 畏계로無禮에 대한 속죄도 하지 못하고 있다. 더더구나 못된 버릇은 여전해서, 언젠가 기회가 돌아오면 그 누구도 못해 본 「목멱산신령영감님」이라는 칭호를 선생님들께 선사하고 싶다는 염려한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 말이다.



자리가 비어 있었다. 뇌리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던 恩師님들의 명폐가
내려져 있었던 것이다.

상에 젖어 후배들의 건강한 웃음소리로 활사한 「백상의 집」에 커피를 시켜마시며 社會生活에 짜들리지 않았었던 10년전의 내 모습을 떠올리는拙巧도서슴지 않았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활달한 그들의 모습이 형편없는 나의 간수성의 計數를 그때 그 시절의 그것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물론 그런 느낌이 결코 오랫동안 지속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내겐 밤새도록 연탄가스로 신음을 하다가 신선한 찬공기를 마시고 의식을 들린 환자의 그것처럼 소중하게

詩는 하늘이 내린 召命

—제23회 소설문학 신인상 임형욱君



『詩의 원형질로 생각되는 감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評과 제23회 소설문학 詩부문 신인상을 수상한 임형욱(國문4)君 『서물지만 내쁨의 하늘을 날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히는 임君은 소설문학 8월호에 「강물소리」外 4편의 詩로 신인상을 수상, 단체였다.

소설로써 文學과 인연을 맺은 임군은 이번 詩등단이 주위에선 벌집도 밟아들여서 서글프며 지금도 자신은 소설가가 될것을 확신한다고 의지로 보인다.

『소설이 삶의 전체를 조명하는데 비해 시는 일부를 통해 전체의 삶을 표현할수 있는 잇점이 자신을 소설이 아닌 詩로 등단케한 것 같다』며 아직은 소설을 자신의대로 이끌어 좋은작

품을 만들어낼 역량이 부족하다고 결손해했다.

『美的인 것과 美는 구분되어야 하며, 文學에 있어서의 美는 고통스러워하는 삶에 있다가 문다』며 『앞으로 저의 문학은 이러한 현실의 모순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는 여러가지 삶의 모습들을 그려내겠다』고 앞으로의 문학수업의 방향을 밝히는 임君에게서 東國文學의 전통을 이어갈 문학정신을 읽을 수 있었다.

회費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1만원회보제작·장학기금·사무국운영에 요긴

(단위=만원)	▲최수호(78경원)=〃	▲안정희(81행정)=〃	▲이홍우(80체교)=〃
◇常務理事會費	▲김의중(56정치)=〃	▲이수용(85경영)=〃	▲박경남(85영문)=〃
▲라득환(85경원)=20	▲김재주(58영문)=3	▲박용민(69영문)=2	▲이재성(86경원)=〃
▲김수환(61경제)=〃	▲이영준(64상학)=1	▲노경진(68불교)=1	▲강석문(72행정)=〃
▲이종호(58법학)=〃	▲김기종(61국문)=〃	▲이근오(64국문)=〃	▲활병학(73학화)=〃
◇理事會費	▲유재준(70국문)=〃	▲이승호(66화학)=〃	▲이중웅(64임학)=〃
▲이영길(68농생)=5	▲신체식(57국문)=〃	▲곽종희(70상학)=1	▲박종식(79법원)=〃
▲김동체(67불교)=10	▲허래구(68농학)=〃	▲전미선(80교육)=〃	▲전미선(49불교)=2
▲신인섭(79전산)=5	▲고광규(61불리)=〃	▲조지환(58경제)=〃	▲김용희(49불교)=1
▲백봉호(61법학)=〃	▲강병언(62경제)=〃	▲송석환(68농경)=〃	▲조홍구(75경영)=〃
▲인정일(72행원)=〃	▲김신성(77원전)=〃	▲김주식(81국문)=〃	▲이필경(71사회)=〃
▲이호완(64정치)=〃	▲김병우(69생생)=〃	▲서남우(52국문)=〃	▲유기동(68경제)=3
▲천기웅(60정치)=〃	▲이호환(78경원)=〃	▲김원수(81국문)=〃	▲김세만(83경원)=1
▲박종국(65행정)=〃	▲박성백(68행정)=〃	▲김종욱(60생물)=2	▲이덕원(72사학)=〃
▲김승우(67정치)=〃	▲윤성렬(84회계)=〃	▲김경진(81경원)=1	▲조환태(63법학)=〃
▲임천준(54국문)=〃	▲노인환(77경제)=〃	▲조희필(86경영)=〃	▲서병수(62경제)=〃
▲한세기(67행정)=〃	▲임승우(62법학)=〃	▲정수남(58영문)=〃	▲김지환(60정치)=〃
▲오종명(66농학)=〃	▲방대현(81행정)=〃	▲김재택(49문화)=〃	▲이경식(85경원)=〃
▲고문석(52경제)=〃	▲김상동(59법학)=〃	▲김용성(69경행)=2	▲김영석(77사학)=〃
▲장도송(85경원)=〃	▲배석문(82원전)=〃	▲김효정(76원원)=1	▲김종수(61법학)=〃
▲최덕현(63생물)=〃	▲최재송(64경영)=〃	▲이영안(69경영)=〃	▲김달수(62법학)=〃
▲설탁(58경영)=〃	▲장덕환(83원원)=〃	▲조효길(58화학)=〃	▲나준우(63법학)=〃
▲홍두표(60법학)=〃	▲이현진(81경외)=〃	▲박태술(64경제)=〃	▲정진설(67경제)=〃
▲김대용(67경제)=〃	▲임용민(78원원)=〃	▲김준운(81원원)=〃	▲김재호(77토목)=〃
▲남시혁(58정치)=〃	▲최정승(68화학)=〃	▲정수환(80산공)=〃	△단체회비
▲박삼장(69상학)=〃	▲안남월(49문화)=〃	▲이영우(61국문)=〃	▲캐나다지부(會長:조정대)=500\$
▲조중진(58정치)=〃	▲박현섭(60영문)=〃	▲김동호(76통계)=〃	▲시카고지부(會長:김주선)=200\$
▲박도근(65상학)=〃	▲김영태(86경영)=〃	▲박천영(80원원)=〃	▲중국본부(會長:유국형)=30
◇年會費	▲박주화(72승생)=〃	▲김진우(58정치)=〃	▲광고료
▲김경유(67농학)=2	▲이경식()=〃	▲이해선(60경제)=〃	▲동우회보 광고료=19
▲최홍길(62경제)=5	▲이상린(82원원)=〃	▲강남식(78원원)=〃	▲한국생명보험우회(會長:김종영)=1
▲김부영()=1	▲한창옥(62영문)=〃	▲고재용(80화학)=〃	▲한국생명보험(92회원)=30
▲김영수(62경제)=〃	▲김영태(86경영)=〃	▲나기연(69경영)=〃	▲우동우회보 광고료=160
▲이승호(63경계)=〃	▲박귀복(60국문)=〃	▲김기환(83원원)=〃	
	▲김종백(44불교)=〃	▲김승봉(78원원)=〃	

'8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지난 29일 博士 21·碩士 1백 85명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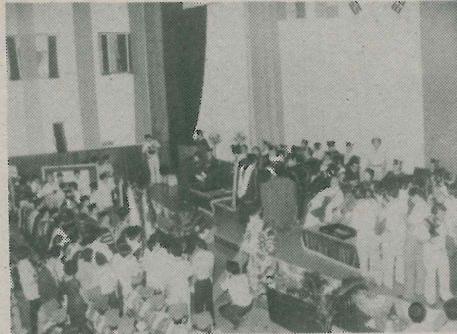
198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9일 오전 11시 모교 중강당에서 거행되었다.

吳綠園(재단이사장)과 李智冠(총장) 및 尹鎰均(본회부회장)(원내원 동창회장), 洪淑子(부회장), 安在林(부회장)등의 각계 인사와 교수, 출업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삼귀의례, 국민의례에 이어 국민교 윤현장 낭독 및 학사보고가 있었으며 李忠掌은 식사를 통해『학문의 궁극적 이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전세하고『가치관의 혼란을 빚는 현대 사회에서 학문의 조화를 통해 세계 속에서 구체적 역할과 임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鄭在哲(本會회장)은『尹부회장대독』 축사에서『조국의 장래를 깊이 생각하고 맑은 바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하며 아울러『동문의 한사람으로서 모교 東國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후기 학위수여자는 박사학위 21명, 대학원 석사 49명, 행정대학원 석사 36명, 교육대학원 석사 46명 등 모두 2백 6명이 배출되었으며 박사학위 취득자는 다음과 같다.

▲徐閔吉(불교학) ▲車勇吉(〃) ▲金明姬(국문학) ▲金惠淑(〃) ▲蘇洪萬(영문학) ▲辛虎雄(사학) ▲安圭哲(교육학) ▲宋尙舞(〃) ▲鄭基燮(정치학) ▲唐承皓(학제학) ▲宋成柱(경제학) ▲朴喜森(경영학) ▲洪性樂(불리학) ▲朴文奎(화학) ▲文順九(〃)



▲吳中煥(농학) ▲鄭龍文(임학)
▲鄭元錫(응용생물학) ▲李浩源(〃) ▲金鉉九(식품가공학) ▲金東萬(〃)

계간「대학소식」긴행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모교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대학소식」 87년 여름호가 발행되었다.

지난 5월 8일 복호로 그 첫 출발을 본 「대학소식」은 모교의 홍보와 우수학생 유치를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이번호에는 李仰基(56불교) 교수의 東國頌詩를 비롯, 韓相範교수의 교양 논단, 수험생 건강관리 등 大人수험생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慶州 도서관 확충

총 1백 60석 규모로

모교 慶州캠퍼스 도서관(관

장=金英吉)이 도서관 2층 서편에 총 1백 60석의 열람실을 확충, 개강과 함께 새롭게 개관했다.

이번 열람실 확충은『신체장애 사 이용의 편리도보와 시험기간 중 부족한 열람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학교당국자는 밝혔다.

母校 제19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보궐선거가 내달 15, 16일 양일간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6월 15일 「救國學生總會」에서 총학생회 정·부회장이 단행됨에 따라 학생회장 제67조에 의해 새로 실시되는 것으로 종양선거 권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 총학생회장 권한대행·무역 4)가 밝힌 선거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입후보자 등록=8월 27일~29일 ▲선거공고=9월 1일 ▲후보자 인터뷰=9월 5일 ▲선거유세=1차(8일) 2차(10일) 3차(11일) 각각 오후 1시 ▲공개토론회=9월 11일 ▲투표=15일~16일 ▲개표=17일 ▲당선공고=17일 오전 10시 ▲확정 공고=18일 오전 11시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병원부지 확정

89년 12월 완공 예정

母校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부지가 변경 확정, 현재 설계작

업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지는 지난해 9월 慶州한방병원 옆 테니스장 주변으로 확정했으나 이번에 慶州캠퍼스 정문앞 야산으로 변경한 것으로 대지면적 4만 3천평, 병상규모 병상 3개여개를 갖춘 총 5천 1백평(의내 4층건물, 전용 1천 5백평)의 7층건물 규모로 토목·조경·폐수등 기타 시설을 갖추게 된다.

母校 레슬링부 領權

대학선수권 대회서

母校 레슬링부가 제11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자유형) 종합우승을 차지해 이 대회 2연패를 이룩했다.

지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38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母校 레슬링부는 자유형 10개체급 중 6개체급을 석권하는 등 기록을 토쳤는데 각 체급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신상규(체고 1)=57kg ▲김태현(국고 3)=62kg ▲김광수(경핵 3)=74kg ▲김정복(경핵 3)=82kg ▲문상운(국고 2)=90kg ▲정성문(경핵 4)=100kg ▲최종서(국고 1)=52kg ▲이주우(체고 2)=57kg ▲김일두(경핵 1)=74kg

獨 레겐스大와 자매 결연



萬海 詩碑 8월말 완공

대표작 「님의침묵」을 새겨

우리민족의 위대한 독립지사 이자 시인이며 東國精神의 지주였던 卍海 蘭龍雲(18明進) 동문의 詩碑가 오는 9월 초 모교 본관 북쪽부지에 세워진다.

서예가 一中 金顯洙씨의 글로 앞면에는 「萬海詩碑」라 새겨져며 뒷면에는 취지문과 「님의침묵」 원문이 현대어로 새겨지는 이 詩碑는 4m 70cm의 화강암으로 제작된다.

한편 卍海詩碑건립에 따라 기존부지에 있던 안중근의사의 필적비는 명진관 동쪽부지로 이전하게 되며,母校 계산관앞 화

단에 2m 크기의 자연석으로 복원하려했던 東岳 李安鈞선생의 詩碑는 장소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石田 李丙疇교수 정년퇴임 기념 강연

母校 국문과 교수인 石田李丙疇(50國文) 동문의 정년퇴임 기념강연회가 지난 6월 23일 오후 3시 「杜詩30年」이란 주제로 교수, 학생, 제자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동국관(L30 1)에서 열렸다.

總學보궐선거 내달 15·16일

유세 중 공개 토론회 가져

母校 제19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보궐선거가 내달 15,

16일 양일간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6월 15일 「救國學生總會」에서 총학생회 정·부회장이 단행됨에 따라 학생회장 제67조에 의해 새로 실시되는 것으로 종양선거 권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 총학생회장 권한대행·무역 4)가 밝힌 선거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입후보자 등록=8월 27일~

29일 ▲선거공고=9월 1일 ▲

후보자 인터뷰=9월 5일 ▲선

거유세=1차(8일) 2차(10일)

3차(11일) 각각 오후 1시 ▲

공개토론회=9월 11일 ▲투표=

15일~16일 ▲개표=17일 ▲당

선공고=17일 오전 10시 ▲확정

공고=18일 오전 11시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열람실 확충은『신체장애 사 이용의 편리도보와 시험기간 중 부족한 열람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학교당국자는 밝혔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열람실 확충은『신체장애 사 이용의 편리도보와 시험기간 중 부족한 열람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학교당국자는 밝혔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새총학의 임기내 사무처리의 어려움과 차기 총학과의 업무이행 등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총학 선거시기를 현재의 11월 중에서 3월 중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iv

아침의 청룡사는 끝에 물려
오는 목탁 소리 안에서 더욱
그윽하였다.

예불을 마치고 반가이 記者
를 맞는 真弘스님(76승기)은 일
손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이 옛
모습이었다.

『소감이라기 보다도...』사실내
가 서를 다섯점도 일째까지도 그
다지 慈心이 깊지 못했고... 그
려다 삶에 대한 고마움과 향
기를 끼끼게 되어 부처님께 두 편
가 보답을 드려야겠다고 결심
했죠. 내가 가장 기꺼이 찾을
수 있는 일은 결국 불교에 대



한 공부니까 열심히 해본거죠』

국내최초의 첫 비구니박사라는 색다른 타이틀(?)을 갖게 된 기쁨과 아련곳이 아련하게 말을 잇는 스님은 「中國格義佛教의 研究」로 대단과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이 분야를 택하게 된 동

기는 궁극적으로 경전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적 정열때문.

대단에서 공부하던 때의 어려움을 물자『아이구 말 말아요. 이건 원형무소 같기도 하구 감옥이나 무인도 같기도 하구 여기 계신 노스님이란 친지를 이 어찌나 그리운지 눈물도 많이 쏟았죠. 그러던 중 그곳 중국스님의 경을 한줄 읽을 때마다 절하곤 또 경을 읽고... 하는 경건한 모습을 보고 용기를 냈죠. 참 그때 아주 우스운 일이 있었어요. 중국어에 학코스를 밟느라 학교일간 첫 날인데 혼자 돌아올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에게 길을 묻는데 중국어도 영어도 안통하는 거예요. 나를 한참 쳐다보던 그 학생은 중국은 10월을 주고 가더군, 탁발승인줄 알았던 모양이죠』하고 당시를 회

상하며 밝게 웃는다.

교외에서 학부, 석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모교의 종교적 분위기 가 더욱 학문에의 길을 부채진다. 저마다 몇몇이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후학들에게『짧은 시간이나마 참선의 시간을 먼저 가져 봐 그런 깨끗한 마음자세로 경전을 읽고

나서 하고픈 공부를 하는 것 이 바쁜 순서라고 봐요... 부처님의 말씀, 끝 진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것이어요. 인간이란 그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기도와 수행으로서 최선을 다할뿐이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가치일 테니까요』라며 불교적인 간판에 대한 소박하나마 확고

「東國을 기리는 마음까지 떠내려가서야...」

동우회 파악 협조들...

○...本會에서는 조지강화의 일환으로 각급동우회 현황을 파악중인데, 단위동우회의 협조가 기대에 못미쳐 안타깝기만.

최근 대풍『설마』에서『다이너』에 이르기까지 크고작은 수작과 사회문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고는 하지만, 동문들의 東國을 기리는 마음까지 떠내려가서야...

이번 각급동우회 재파악작업이 조지강화는 물론, 東國人名錄補正, 우편물반송 방지등에 부착 요청한 일이고 보면 각급동우회 일원을 비롯, 7만 東國人 모두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재삼 당부 드립니다.

회비부탁 기재사항 확실히

○...동문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本會는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해외지부에서 회비를

보내주시실때면 외화획득(?)이라는 측면에서 本會로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지고는 점에서 새삼 감사 또 감사...

계속적인 성원 부탁드리며



東東同動

회비를 납부하실때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로카드로 회비를 납부하시는 동분께서는 지로카드에 출입연도와 성함을 꼭 명기해 주시면 감

『회비납부시 출입연도, 성명을 꼭 써주세요』



現代自動車(株)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그렌저” 판매개시 2,000CC 2,400CC 3,000CC

판매과장 : 柳在善
(70경 · ROTC 8기)

TEL 274-3103~7
야간 914-6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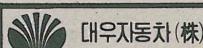
1급 자동차정비사업체

◎ 오성공업사

635-3651~3
635-2828

*

* 전화상단환영 *



대우자동차(株)

'87신형 정통 고급승용차 틴생

로얄시리즈(듀크·프린스·살롱·수퍼살롱)
월드카 르망시리즈(GSE·GTE·레이서)

TEL. 540-4740(직)

(야간) 487-7539

판매과장 : 崔鉉石 (74연영)

강남구 논현동 88-7 (고려 B/D 1층)

■ 西独 보쉬 純正品

연료절감
엔진 출력 증가 / 수명 연장

■ 적용차량

현대·대우 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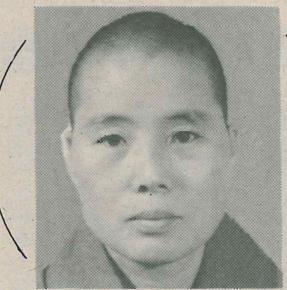
thermo plastic



수입원 : 洋陽商事 (대표 : 沈載録 · 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프터서비스 244-0997

『삶에 대한 고마움을
부처님께 보답하고파요』



한 신념이 뒷받침이다.
佛子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어려워
는 질문에 스님은 『난 잡지도
여간해선 안 보고... 그러나 자
연 사회문제에 둔감한 편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수선한 건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제 땅을
다하고 있지 못한 까닭인 것
같아요』하고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도 한다.

『불교는 물론 동양사상은 그
근본부터가 나와 남을 구별하
지 않고 동일한 인격체로 이해
하는데 서양사상은 개인주의를
까하는 점으로 거리감을 두는
듯 싶어 아쉬워요 하지만 서
로 이해하는 노력이 계속되는
한 바람직한 화합은 반드시 가
능하다고 봅니다』라고 타종교
와의 교류에도 낙관적인 견해
를 피력하는 真弘스님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반야사상이랑 법화
사상 등 공부하고 싶은건 너무
많은데 싶은 쪽은 격려해주세요.
너무 윤실인가 싶어서, 하지만
할수 있는데 까진 끊임없이 노
력해볼 생각에요』라며 계획을
밝히는 스님의 눈동자에는 어려워
가면서에서도 불티의 길을
따르는 구도자의 외로운 긍지
가 함께 빛나고 있었다. 【塘】

평을 듣고있다.

「산업재해방지론」

金禱經 編著

하인리히의 名著인 「산업재해방지론」이 金禱經(모교 행정대학원교사) 교수에 의해 발췌, 편역되었다.

산업안전 관리사들이 실무에
임하면서 최선의 방법으로 적
용시킬수 있는 산업재해방지의
원칙과 기본원리, 산업안전계획
과 방법이 잘 기술되어 있다.
〈경진사刊 · 7천원〉

「國際關係史」

白京男 著

外交관계를 역사적 과정에서
고찰한 「국제관계사」가 모교 국
민윤리학과 교수인 白京男(65·
정교) 동문이 의해 간행됐다.
근래 국제사학가가 형성된 과정에
서부터 현대까지의 국제체계와
그 역학관계를 설명한 이 책은
특히 국제체계와 질서는 그
것을 주도하는 강대국들의 권
력기반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부
록으로 「外交年表」가 수록되어
있다. 【법지사刊 · 6천원】

世進家具有工芸店

TEL : 736-7887, 2311

■ 가정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정외)

■ 사무용 가구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 혼례용 가구

(서대문 · 독립문 중간)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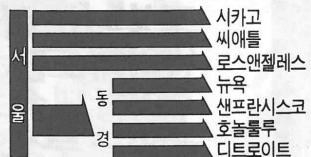
소비자 상담실 863 4040

대표 이사 홍 평 우 (70 경영)

시카고로 가십니까? 40 논스톱으로 다녀오십시오.



서울에서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시카고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께는 노스웨스트의 시카고 논스톱을 권해 드립니다. 매주 3회(월, 목, 토) 운항되는 시카고 논스톱편에는 도착후 산뜻한 기분으로 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보다 넓직한 좌석, 최고급 와인 및 정갈한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카고 이외의 도시로 가실 분은 에어링크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내 200여 도시로 모셔드리는 노스웨스트 국내 연결편을 이용하십시오. 미국으로의 빠르고 편안한 여행은 단연 노스웨스트입니다.



 노스웨스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예약은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로 전화해 주십시오. ● 서울 734-7800 ● 삼성공 735-8500 ● 조선호텔 777-9786
● 롯데호텔 778-8240/1 ● 힐튼호텔 752-2394 ● 반도호텔(부산) 44-2240, 462-3443

 NORTHWEST

洪性裕 人生劇場

將軍의 아들



“
무장독립군으로
일본군을 대파한
백야 김좌진 장군.
그 빛나는 아버지의
위업에 도전하는
주먹황제 金斗漢의
끝없는 투쟁의 기록!
”

朝鮮日報 연재소설
홍성유 인생극장 / 將軍의 아들!
폭발적인 화제 속에 제5,6권 연속 출판!

홍성유 인생극장 (장군의 아들)은 우리 시대의
신화적 인물 金斗漢을 주인공으로 흥미
진진하게 펼쳐나가는 사회소설이다. 압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으로 시종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이소설
은 박진감 넘치는 사건전개, 걸작한 인물,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소설의 참재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金佐鎮 장군의 아들 金斗漢은 임꺽정의 배짱과
돈키호테의 진지함, 대부의 균성으로
빼앗긴 땅에서 주역계의 황제로 등극, 日帝의 무리들을
한손에 쥐고 뒤흔들며 민족혼을 불태웠던 情義 넘치는
巨漢으로, 펑박만는 자의 보호자로, 드디어는政界의
거물로 격동의 한국 근대사에 우뚝섰던 우리 時代 가장
늠름한 대장부이며 大自由人이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作家가 아심적으로
써낸 이 작품 속의 특이한 인물들은
기상천외한 행위를 연출하면서 우리를 기억한
인생무대로 초대한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우리가
결이든 근대정치·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일깨우고 있다.

日帝의 무리들을 한 주먹에 쥐고 뒤흔들었던
격동의 시대 풍운아들의 극적인 삶과 죽음!
울분 속의 기행과 폭력, 뜨거운 애정과 의리!
한국 근대사의 생생한 모습 (將軍의 아들)

野史 에도 正史에도 기록되지 않은 숱한 사람
들이 이름을 강탈한 일본 야쿠자, 그 거리를
배회하는 거령뱅이, 접대부들, 민족 수난의 암흑기에
상처받은 지들과 함께 하며 자유와 정의의 편에
서서 눈부시게 활약했던 金斗漢이 비인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긴 감동의 과문!

* 전6권·국판·각권 300면내외/각권 값 3,300원 * 날권판매 * 서점에 있습니다.



고려원 · 영업부: (353) 6441~3
친집부: 739-17741~3